



### 바다, 내 언어들의 희망 또는 그 고통스러운 조건·31

-우리가 불가역적 계약, 혹은 불가역적 사건이라 믿는 것들에 대해①

오택환

모래로 된 개무릇 모래로 된 가지미새끼 모래로 된 풀췌기 모래로 된 개구리밥 모래로 된 장구애비 아니면, 모래로 된 혼천의(渾天儀) 모래로 된 한데 뚱

모래처럼 수북한 인종들이 지하철 4호선 플랫폼으로 모래처럼 엮질러진다 모래비가 오려나 봐 수십억 년 황폐해진 모래의 비계(飛階), 또는 모래의 비상구 모래바퀴를 단 역세권의 1톤 픽업이 아무데서나, 가망 없이 모래처럼 주저앉고, 모래 문신을 한 모래인종 하나가 그 옆에서 식은 모래의 식은 순대국 밥을 뜨고 있다. 세금 탈루범과 앵벌이 들이 모래처럼 잠입하는 남태평양, 모래의 골목 쪽쪽 모래비가 올 것 같더니가 모래비가 곧 올 것 같지? 어디선가 모래인종들의 혀와 입술이, 입술과 혀가 모래처럼 서로 스며들다가 모래처럼 흩어지며 무산되는 어슬넝

모래가 모래끼리 모여 모래의 월식(月蝕)을 바라본다 하기가, 어차피, 과연 캄브리아기(紀)나 그 이전부터 자행된 모래의 접선, 또는 모래의 내통

모래로 된 외로운 모래로 된 췌신별레 아니면, 모래로 된 미분과 적분 모래로 된 화훼(花卉) 모래로 된 접시저울 모래로 된 증력방정식 모래로 된 트랩셋 ('포지션' 2017 여름) <운동주서시문학상 본상 수상작>

## 시인이란 슬픈 천명 속 언어의 희망을 보다



### '2017 제2회 운동주서시문학상' 수상작품집 발간

#### 광주일보·계간 '시산맥' 공동 제정

#### 본상·해외작가상·해외작가특별상 등 다수 작품 실려

올해는 운동주 시인(1917~2017)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오늘 운동주를 기억하고, 그의 시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가족한 일체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시에 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많은 문인들이 '조선문인협회'라는 친일 문학단체에 가입해 일신의 영달을 추구했지만 운동주 시인은 "일송정 푸른 숲"처럼 낯익은 시대의 풍파에 맞섰다. 그로 인해 그는 28세라는 푸른 나이로 후꾸오가 감옥에서 의문의 죽임을 당하고 만다.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미 있는 시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

동으로 제정한 '2017 제2회 운동주서시문학상'의 올해 수상작품집(시산맥)이 발간된 것.

지난 한 해 각종 문예지에 좋은 작품을 발표하고 평판이 부끄럽지 않은 시인을 대상으로 문학상 위원들이 심사를 한 결과 각 분야의 수상자들이 지난 달 결정됐다.

수상작 작품집에는 서시문학상 본상(상금 1000만원) 수상자인 오택환 시인의 '바다, 내 언어들의 희망 또는 그 고통스러운 조건·31'의 6편과 자선 대표작 '별빛을 쏘다'의 6편이 수록됐다.

해외에서 거주하며 한글의 정성을 잊지 않고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운동주 서시해의 작가상' 수상자인 권귀순 시인의 '이슬이 비치다'의 4편, 자선 대표작 '눈시울 붉은 저녁이 있었다'의 4편 등이 실렸다. 또한 해외에서 운동주 시인을 기리

는 활동을 전개해온 문인에게 주는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특별상'의 주인공 문인귀 시인의 '별지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는다'의 4편 등 다수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또한 각 부문 수상자들의 작가 연보, 심사평 등도 실려 있어 심사 경위를 비롯한 선정 작품 의미 등 올해의 운동주서시문학상에 관한 다양한 면모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운동주 서시 문학상 본심을 맡은 허영자·송찬호 시인과 신진숙 평론가는 "오택환 시인의 작품이 서정의 물음에 가장 충실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유쾌하듯 번지고 사라지는 수다한 언어와 이미지들 사이에서 그가 만들어낸 시적 순간들은 우리 시사에서 귀중한 풍경으로 자리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밖에 작품집에는 각 부문 추천 우수작이 실려 있어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운동주 서시 문학상 추천 우수작에는 윤의섭·전동균·정재원·조정인 시인의 작품이,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상 부문 추천우수작에는 박만엽·이명숙·장효정 시인의 시가 담겨 있다. <북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 오늘 광주젠더포럼

광주여성재단은 27일 오후 4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제6회 광주젠더포럼 정기총회 및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더불어 만들고 더불어 누리는 광주젠더포럼'이다. 이번 행사는 광주젠더포럼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

해 광주대학교 김미경 교수가 진행을 맡고, 광주여성재단 노재영 사업운영실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과위원들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다.

또, 분과별 키워드를 제시하여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광주젠더포럼 제6회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광주젠더포럼은 2012년 6월에 발족해 지역여성 정책 의제발굴과 여성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노동, NGO, 교육·보육, 사회복지·보건으로, 문화예술·건축·체육, 과학기술·생태환경, 청년여성, 여성진화, 다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여성인재 552명이 11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670-053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지오이아'의 풍부한 하모니

### 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공연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11월의 아름다운 작은음악회는 남성 합창단 지오이아(지휘자 민상홍)의 무대다.

'지오이아 합창으로 겨울나기'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탈리아로 '기쁨'이라는 뜻의 지오이아(GIOIA) 남성합창단은 2010년 6월 창단했다. 이번 11월 연주회에서는 깊어가는 가을 영혼의 울림을 주는 성가곡과 깊은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한겨울', '소나무' 등의 가요, 그리고

'남촌', '명태' 등 한국 가곡 등 다양한 합창곡을 들려준다. 후반부에는 '새야새야 파랑새야', '거제도 뱃노래' 등의 우리민요, '흥보가 기가 막혀', '카레' 등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오이아는 201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5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또, 교회, 병원, 5·18 행사 등 30여 차례의 순회연주 및 여러 합창단과 협연을 하기도 했다.

공연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에서 할 수 있다. 전석 2만원, 문의 062-613-8237.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진시영 작가 다큐 르포 '유럽 그랜드 아트투어'



###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상설 전시

올해는 베니스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윈스터 조각프로젝트가 10년만에 동시에 개최된 의미있는 해였다. 'Grand Art Tour'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현지를 방문했고 진시영 작가는 생생한 현장 모습을 담은 작품을 전시했다.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기획한 '2017 Europe Grand Art Tour 다큐 르포&미디어 아트'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에 상설 전시중이다.

'Europe Grand Art Tour 다큐 르포&미디어 아트' 세계적 행사를 현장감 있는 다큐멘터리 형식과 여행 중 생긴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담은 영상 작품. 영상은 2007년과 2017년에 진

행된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2년마다 개최),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매년 개최), 독일 카셀 도큐멘타(5년마다 개최)와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10년마다 개최) 등 3개국 4개 행사를 담았다.

영상작품은 아날로그 TV 38대를 사용해 빠른 속도의 화면 구성으로 연출해 행사 현장의 예술적 열기를 느낄 수 있다.

미디어아트 아카이브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 조성된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 플랫폼' 6개 공간 중 하나다. 관람료는 무료,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피아노 앙상블 '클라랑' 내일 연주회

피아노 앙상블 클라랑의 5번째 정기연주회가 2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최연주씨와 조혜원씨로 구성된 클라랑은 지난 2011년 결성 후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신대를 거쳐 독일바이마르 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친 최씨는 호남신학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역시 호신대 출신으로 오스트리아 린츠 안톤 부르크너 주립음대에서 수학한 조씨도 호신대, 전남예고 등에 출강중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드보르작의 '슬라브무곡 작품 72'의 '물도 비바체', '알레그레토 그라지오소', '알레그로' 등과 무소로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의 '프롬나드 I', '난쟁이', '고성', '3곡 릴리 궁전', '4곡 비들로' 등이다.

전석 1만원, 문의 010-5336-7279.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는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망)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전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